

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국토교통부 |                      | <b>보 도 자 료</b>   |  |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br><b>보다 나은 정부</b>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| 배포일시   | 2019. 4. 25.(목)<br>총 4매(본문3, 참고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<br>부서  | 첨단자동차<br>기술과         | 담 당 자  | • 과장 이창기, 사무관 이용관<br>• ☎ (044) 201-3848, 4081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국토지리<br>정보원<br>지리정보과 | 담 당 자  | • 과장 이하준, 사무관 우병진, 주무관 문지영<br>• ☎ (031) 210-2606, 2730, 2731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 도 일 시   |                      | 2019년 4월 2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25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차원 공간정보 담은 정밀도로지도, 민관이 함께 만든다 26일 17개 기관 업무협약·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민관이 협력하여 자율주행차용 정밀도로지도를 효율적으로 구축·갱신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
○ 업무협약에는 완성차업계, 이동통신업계, 지도제작업계, IT·전자업계의 14개 기업과 관련기관이 참여하며, 26일 오후 2시에 개최될 협약식에서 총 17개 참여기관\*이 공동구축체계 관련 협력체계 구성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\* 기업(14) : 현대자동차, 쌍용자동차, 만도, SKT, KT, LGU+, 현대엠엔소프트, 카카오, 아이네비시스템즈, 나비스오토모티브시스템즈, LG전자, 네이버랩스, 쏘카, 카카오모빌리티  
 관련기관(3) : 국토교통부, 국토지리정보원, 한국도로공사

□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, 도로·교통 규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\*로, 자율주행차 센서정보와 정밀도로지도를 결합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.

\* 규제선(차선, 도로경계선, 정지선, 차로중심선), 도로시설(중앙분리대, 터널, 교량, 지하차도), 표지시설(교통안전표지, 노면표시, 신호기) 등 포함

□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정밀도로지도는 정부가 단독으로 구축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개발 수준과 민간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우며, 민간이 경쟁적으로 구축·갱신하면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.

○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, 지난 3월 참여기관 회의를 통해 협력관계를 우선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.

※ 일본은 자율주행차용 지도의 공급·관리를 위해 일본정부, 자동차·지도업체 등이 공동출자한 컨소시엄을 출범하여 일본 전국지도 제작 중(자본금 약 210억원, '16.6월~)

□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은 공동구축체계 설립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하여, 공동구축체계 세부 추진방안\*을 마련할 예정이다.

\* 공동구축 데이터 사양, 구축범위, 갱신방안, 공유시스템 운영방안, 비용분담 등

○ 공동구축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구간을 확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되며, 기업들은 각자 원하는 역할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공동구축체계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.

<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 추진계획 >



○ 국토교통부는 '15년부터 올해까지 약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고속도로를 포함한 약 5,500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있다. 향후 민관 공동구축체계 공식출범을 통해 전국 모든 도로 약 11만km에 대한 정밀도로지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-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이 정밀도로지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, 나아가 자율주행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.”고 말하고,
- “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정밀도로지도를 비롯한 스마트 기반시설(인프라)을 구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용관 사무관 (☎044-201-40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 참 고

##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을 통한 변화상

